

5문 5답 국가안전대진단

Q1. 국가안전대진단이란 무엇인가요?

A1. 국가안전대진단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등이 모두 참여하여 사회 전반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진단하는 예방활동입니다.

Q2. 국가안전대진단은 언제 실시하나요?

A2. 올해는 2월 6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합니다.

Q3. 국가안전대진단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A3. 안전관리 취약시설은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점검, 그밖의 일반시설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합니다. 국민 모두는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신고합니다.

Q4.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무엇을 진단하나요?

A4.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에서부터 안전규정 준수여부, 안전관리체계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Q5. 그 동안의 국가안전대진단 성과는 무엇인가요?

A5. 시설물의 결함 및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보수·보강함으로써 안전사고 및 대규모 재난 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한 국민들의 생활 속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신고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함께하는 안전점검! 함께가는 안전강국! 2017 국가안전대진단

2017년 2월 6일 ~ 3월 31일



안전신문고 앱 바로가기
<https://www.safepeople.go.kr/>



- 진단 주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시설 관리주체, 국민 등
- 진단 대상** 안전관리 대상시설,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 등
- 진단 방법** 안전점검, 안전신고(안전신문고 앱 또는 웹), 제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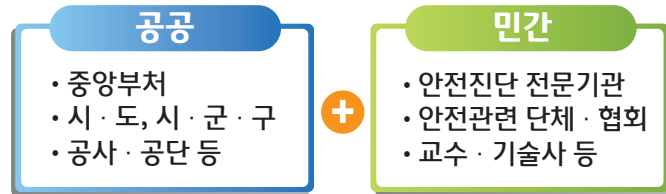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의 큰 틀을 점검합니다.

시설물·건축물의 소유주와 관리자 등
관리주체는 안전관리에 책임을 다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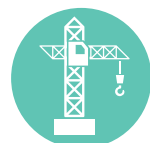
국민 모두는
생활 속 안전 위험요소를
신고하고 개선사항을 제안해 주세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안전관련 단체·협회 등
공공과 민간부문이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함께 합니다.

민간 전문가 참여 확대, 첨단 장비·기술 활용 등을 통해
안전점검의 질을 높이고 안전사각지대를 발굴·개선합니다.



안전관리 취약시설,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통해 결함 및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보수·보강을
실시합니다.



건설현장



화재취약지구



대형 건축물



유해물질 취급시설



급경사지



전통시장

국가안전대전단 기간 동안 관리주체는
시설물·건축물의 안전관리 상태를
구석구석 꼼꼼히 체크해 주세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배포하는 자율점검표에 따라
소방·전기·가스·시설 분야를 점검합니다.

자체점검



소방



전기



가스



시설

산업현장, 원전, 화학물질 등의 전문성이 있는
분야는 공익신고를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소방시설 미설치, 부실시공 등
안전관련 공익 침해행위에 대해 신고해 주세요.

신고

- 청렴신문고(1398.arc.go.kr), 부패·공익신고 앱
- 우편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 지급
 - ※ 공익증진 기여자에게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 ※ 철저한 비밀보장과 보호

상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안전신문고 이렇게 사용하세요!

- 1
안전신문고 앱 설치
- 2
위험요소 촬영·첨부
- 3
신고대상 위치 선정
- 4
신고내용 작성·제출

**안전신문고 체험수기 공모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 공모기간 : 2017. 1. 16.(월)~2. 28.(화) / 44일간
- 응모분야 : 안전신고 체험사례, 처리기관의 위험요인 개선사례
- 응모방법 : A4 사이즈 5매 내외 수기 형식으로 작성
 -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www.safepeople.go.kr 양식 참조
- 수상작 발표 : 2017. 3. 15.(수) 예정
- 시상내역 : 최우수(1) : 국민안전처 장관상, 200만원
 우수(2) : 국민안전처 장관상, 각 100만원
 장려(5) : 손해보험협회장상, 각 20만원